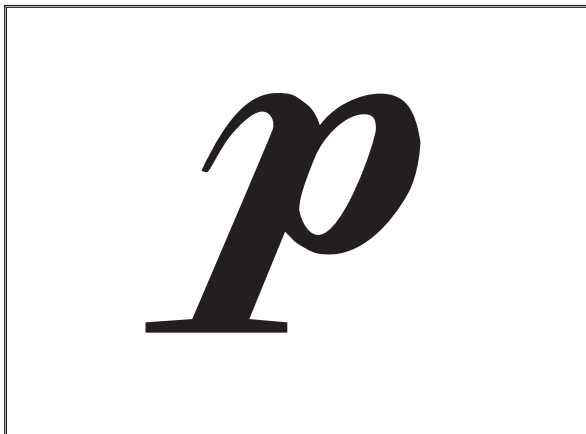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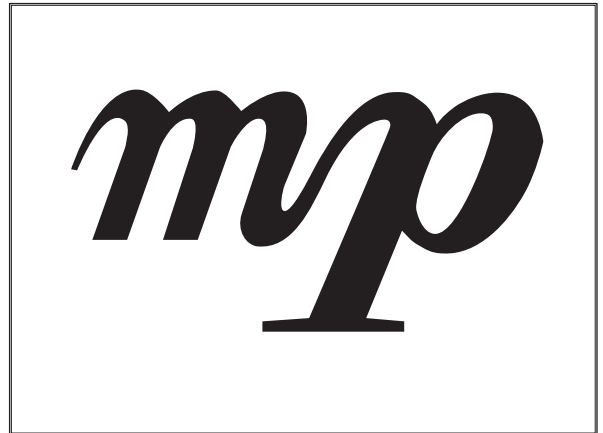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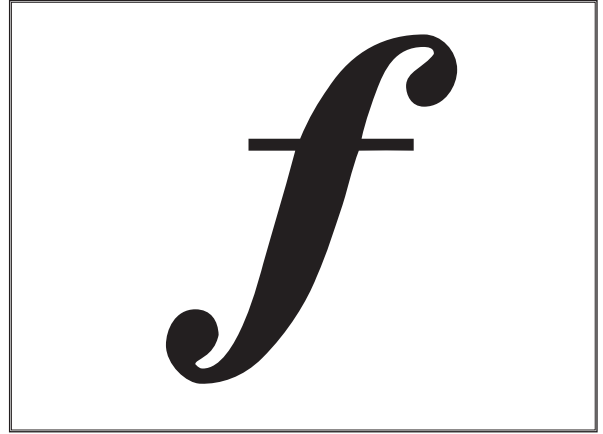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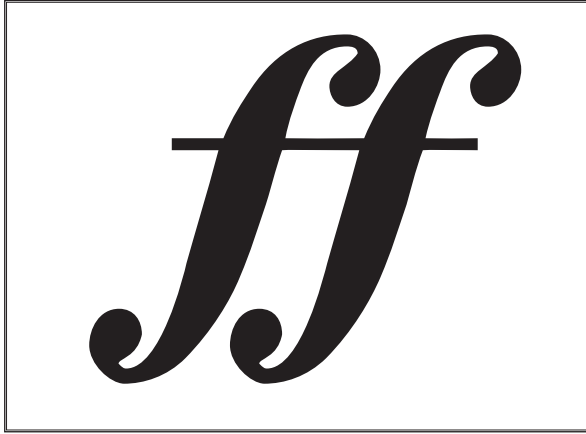


셈여림표 카드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4학년 64~65쪽
제재명	여리게 세계	지도서	4학년 326~327쪽



난타 리듬 악보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4학년 66~67쪽
제재명	우리들의 난타	지도서	4학년 328~329쪽

제시된 음원에 맞춘 전체 난타 리듬 악보

동작 8마디 후

4/4

가

가

나

가

다

다

다

다

라

라

라

라

가

가

가

가

가

가

다

다

다

다

x2

x4

x3

스타카토와 레가토 연습곡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4학년 70~71쪽
제재명	리코더 주법	지도서	4학년 332~333쪽

1. 위험한 선원을 구하라

아일랜드 민요 | 이은정 편곡

조금 빠르게

mf

mf

f

f

‘포구락’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4학년 74~75쪽
제재명	포구락	지도서	4학년 336~337쪽

1. ‘포구락’의 반주 음악

‘포구락’은 고려 시대 때에 송(宋)에서 들어온 춤이다. 조선 전기 악학궐범(성종 24년)이 편찬될 때만 해도 ‘포구락’의 반주는 당악(唐樂)이 연주되었지만 이후 당악의 향악(鄕樂)화가 이루어지면서 향악곡으로 반주되었다.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향당교주가 중심 악곡이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함녕지곡”이 주를 이룬다. “함녕지곡”은 “관악 영산회상” 중 ‘삼현 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을 이어서 연주하는 삼현 육각 편성의 악곡이다. 다만 “함녕지곡”의 ‘삼현 도드리’는 시작은 ‘黃-仲’으로 쪽 뻗어 내는데 이는 “관악 영산회상”의 ‘삼현 도드리’에서 돌장(1각)과 초장 제1각의 가락이 다르다. 현재 “함녕지곡”은 주로 궁중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많이 쓰이며 무용의 종류와 공연 상황에 따라 장단의 수를 증감시키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함녕지곡”에서 ‘군악’을 제외하고 반주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염불도드리’ 대신 ‘자진타령’을 넣어 ‘삼현 도드리-타령-자진타령-타령’의 순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이는 공연 시간의 축약과 무원의 축소와도 관련이 있다. 요즈음은 ‘삼현 도드리’ 반주에 맞추어 죽간자 2명, 봉화 1명, 봉필 1명, 무용수 6명이 등장하고 ‘타령’으로 흥을 돋우다가 ‘자진타령’에서 공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놀이를 마친 후, ‘타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춤을 추며 마친다.

출처 강영애, 『우리 춤과 과학 기술』 제12집 “포구락 반주 음악의 변천”, 한양대학교 우리 춤 연구소, 2010.

2. ‘포구락’ 놀이 방법 및 동작

현재 “포구락”은 그 규모를 축소하여 ‘삼현 도드리’ 반주에 맞추어 죽간자 2명, 봉화 1명, 봉필 1명, 무용수 6명이 등장한다. 이어 ‘타령’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자진타령’에서 공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놀이를 할 때는 무용수가 3명씩 나누어 좌우로 갈라서고 두 명씩 짝이 된다. 이때 무용수는 모두 이수고저(以袖高低) 동작을 하게 된다.

한 사람이 나가 포구문의 풍류안에 채구를 던져 넣고 풍류안에 채구가 통과되면 봉화에게, 통과되지 못하면 봉필에게 가고 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두 사람이 모두 놀이를 마치면 상이나 벌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가 손을 앞뒤로 감는 동작을 한다.



▲ 포구락